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민주당·정부, '2018년 설 민생안정대책' 확정·발표

올림픽행사 지역 IC 통행료 면제·경강선 요금 50% 할인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KTX 역귀성 요금도 최대 40% 할인한다. 평창 올림픽 기간 행사 지역 8개 나들목(IC)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경강선 요금을 최대 50% 할인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설 민생 안정대책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5일에는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17~18일에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KTX 역귀성 요금도 최대 40% 할인한다.

평창 IC 등 올림픽 행사지역 8개 요금소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통행료도 면제된다. KTX 경강선 요금도 최대 50% 할인된다.

정부는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열차, 고속·시외·전세버스, 항공기와 연안여객선을 최대한 증편 운행하고 수도권 시내버스·지하철도 연장 운행하는 특별교통대책도 시

행한다.

온누리 상품권 판매도 확대된다. 2월에 한해 할인 구매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할인율도 5%에서 10%로 확대한다.

명절 상차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223개 농협·수협·산림조합 특판장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와 주요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농축수산물에 한해 정탁금지법 선물 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한우 구입용·국거리·불고기 등 10만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도 늘린다. 정부는 정탁금지법 한도 내의 상품에 대해서는 선물 스티커를 보급하기로 했다.

명절을 전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신·기보 보증 등을 통해 약 27조6000억원의 자금도 지원한다. 공공조달 납품기한도 2월 26일로 연기하고 하도급 대금 조기 현금 지급 및 체불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이듬해부터 대상 발굴을 강화하고 노숙인 무료급식도 일 2식에서 3식으로 늘린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난방용품 지원과 한파 발생지역 거주자 안전 확인도 진행한다.

뉴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관에서는 지역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남 6차산업 특별전을 개최한다. 모델이 보성 이금숙장인의 전통정과 명인 안복자 한과를 선보이고 있다.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로개척 전남농업 '6차산업 특별전' 개최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전라남도 지역 내 우수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소비활성화를 위한 전남농업 6차산업 선 상품세트 특별전을 오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한다.

6차산업은 1(농림수산업), 2(제조·가공업), 3(복합 서비스업)차 산업을 복합한 산업으로 농가의 향토 지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으로 국정과제로 채택된 중요산업이다.

이번 특별전은 김영란법 개정에 따른 지역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전라남도에서 직접 제안해 이뤄졌다. 6차 산업 선 상품세트 상품군은 명인들의 제품이 대거 참여되며 우수제품을 선보인다.

전정자 명인의 5년숙성 천일염과 지하인반수로 제조한 장흥특산물

'햇콩마루 세트', 120년 내림 씨간장을 이용해 발효한 '전통장 세트', 안복자 명인의 '전통한과 세트' 등 총 20여개 전남을 대표하는 명인들의 상품들을 선보인다.

소개된 상품은 사전 철저한 품질검증을 거쳤으며, 시장 판매 가격보다 최대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장력기 전남농업 6차산업 지원센터장은 "공신력 있는 유통업체에서 지역농가 발전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며 "이를 발판 삼아 지역 특산 농산물의 다양한 맛과 기능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광주영농부문장은 "앞으로 지역 농가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전라남도 우수 농·특산물 판로확보 및 매출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지난해 개인이 끊은 카드액 600조 '돌파'

연휴·날씨 영향

지난해 개인이 사용한 카드 금액이 600조원을 넘어섰다. 추석 등 장기연휴가 있었던 데다 추운 날씨 등 기상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605조 6000억원으로 전년(546조4000억원)

보다 10.8% 증가했다. 개인카드 승인건수도 167억8000만건으로 전년(147억8000만건) 대비 13.5% 늘었다.

반면 지난해 3월 이후 카드사들이 국제 카드납부에 대한 마케팅을 축소하면서 법인들의 국제 카드납부 요인이 약화,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155조5000억원으로 전년(169조7000억원)보다 8.3% 감소했

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카드 승인금액과 승인건수는 각각 760조 7000억원, 178억9000만건으로 전년 대비 6.3%, 13.4% 증가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소비심리 개선과 장기연휴, 추운 날씨 등으로 인한 개인카드 승인실적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전체카드 승인실적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156조3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승인건수도 43억1000만건으로 11.0% 늘었다.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35조9000억원으로 15.3% 감소했다.

전남우정청 '착한 예금! 술술 풀려라!!'

세탁건조기 등 경품 증정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정진용)은 무술년 새해를 맞아 '착한 예금! 술술 풀려라!!' 이벤트를 진행한다.

1월22일부터 4월21일까지 우체국 예금 상품별로 일정금액 이상을 예치하면 추첨을 통해 세탁건조기(20명), 무선청소기(50명), 우체국쇼핑 상품(300명) 등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우체국은 지난 2월 정기예금 기본금리를 가입기간별로 0.3%p~0.45%p 인상했다. 1년 정기예금은 기본금리 1.9%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상품인 '이웃사랑정기예금'과 '소상공인정기예금'의 경우 3년 만기 최고 연 2.7%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정기적금은 가입 기간별로 기본금리가 최고 0.2%포인트 인상됐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우체국새출발자유적금'의 경우 3년만기 최고 연 4.5%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정진용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서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하고 착한 우체국예금이 따뜻한 서민금융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소액연체자 25만2000명 '추심중단'

금융위, 연대보증 21만명 채무면제 등 부채 경감결정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 25만2000명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고 연대보증인 21만명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등 46만2000명에 대한 부채 경감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에 대한 심사 결과 상황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 1조2000억원에 대한 추심중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에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는 9만2000명과 최근 3년 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5만 9000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중 생계형 재산 보유자,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다음달 내로 추가 추심중단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8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 2조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완료했다.

다음달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다음달 말부터 지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연장선이다.

"설 명절, 해외 여행 수요 늘었다"

티몬은 올해 설 명절 연휴 기간(2018년 2월 10~17일) 항공권 예약 기록 6만건을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설 명절(2017년 1월 22~29일)보다 해외여행은 늘고 제주여행은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티몬을 통한 올해 설 명절 항공권 예약 건수는 지난해보다 198.1% 증가했다. 특히 해외여행 항공권 예약 증가율이 높았다. 국내 항공권 예약건수는 전년 연휴 대비 37.5% 하락한 것이 비해

해외여행 항공권 예약은 209% 증가, 상승폭이 3배를 넘었다.

올해 설 명절 인기 여행지 1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제주도다. 하지만 예약 비중은 확연히 떨어졌다. 제주도는 지난해 국내외 항공권 예약의 57%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1위에 올랐지만 올해는 작년의 절반도 안 되는 21%를 기록했다. 제주도로 몰렸던 예약 수요는 해외로 분산됐다. 대표적인 여행지는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 등 일본 주요 도시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